박원자의 母情佛心 ⑭ 목련 존자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목련 존자의 어머니는 생전 탐욕과 악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를 구하기 위해 아들 목련 존자는 고군분투하고 어머니를 구제한다. 이것이 백중의 기원이다. 결국 스스로 자성을 깨우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이다.

깨달음 얻어 어머니를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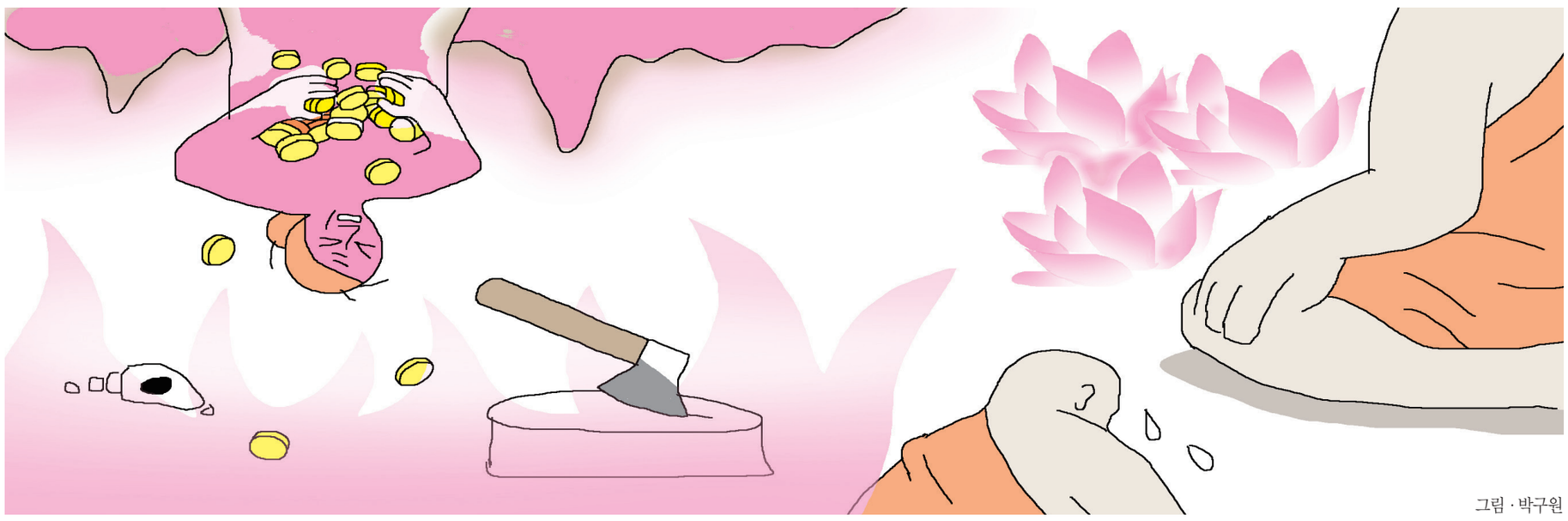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해 지나 우리 오남매가 함께 남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었을 때고 아들딸들이 모였으니 자연스레 어머니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각자 추억을 꺼내들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몇 번 되게 맞았지.", "엄마 굉장히 우리한테 엄하게 대했어."

그런데 나는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이 없었다. 맞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지으며 자식 다섯을 키우려면 매를 안들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무서웠다'는 기억도 없다. 어머니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기억뿐이다. 집이 동네 입구에 있어서 항시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장날이면 지나가다 들어와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놓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우리 집 밥상에 끼어 앉아 밥을 드시곤 했다.

동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너희 어머니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차려주어야 한다' 고 했을 정도로 어머니는 동네에 이런 저런 일이 벌어지면 현명한 해결사가 되곤 했다. 장 담그는 솜씨도 일품이었고, 반찬도 뚝딱 잘 만들어내셨다. 지금도 텃밭에서 막 뽑아온 여린 배추로 끓여낸 된장국 맛을 잊을 수 없다.

말할 수 없이 부지런했고 매사 총명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 아궁이 앞에서 불을 때며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다. 작은 쪽지에 쓴 '주기도문'이었다. 가을 추수를 하고 나면 떡을 한 시루 해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던 것이 어머니의 종교였는데, 말하자면 개종을 한 셈이었다. 두런두런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당에 나가던 어머니가 절에 다니게 된 계기를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이었다. 다니고 있는 절에 신도회장을 맡았다고 하시면서 가족들 이름을 다 한자로 적어달라는 것이었다.

"엄마, 그냥 한글로 쓰면 되잖아." 귀찮아하는 나에게 엄마가 말했다.

"얘, 스님께서 한자 이름을 써서 축원하시는데 내가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불효막심한 내가 무학인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 가끔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곤 한다. 귀찮아하는 딸을 달래 한자 이름을 받아내 종이에 적으며 열심히 연습하던 모습.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한자 이름을 외우던 것이 어머니의 불교였다.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의 나이가 오십도 안 되었을 때였다. 어머니는 시골의 작은 절 신도회장을 한 십년 쯤 하시면서 불사에 앞장섰다. 가을 철 추수가 끝날 무렵이면 권선책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러 쌀을 보시 받았고 공양금도 약속받았다.

"어느 집에 가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다시 찾아가서 시주를 권했더니 미안했다고 하면서 쌀 한 가마니를 내놓더라고."

나중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 불교에 입문하자 어머니는 동지를 만났다는 듯 신이 나서 불사하는 데 화주 노릇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머니의 불심은 아버지에게도 전해졌다. 오로지 근검절약하며 자수성가해 자식들만을 위해 사셨던 아버지의 주머니를 열게 해 보시하게 했고, 말년에는 3천개 보리수 열매가 달린 염주를 넣어둔 바구니가 아버지 머리맡에 있게 되었다. 주무시기 전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늘 염주를 돌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당대 제일간다는 불교학자에게 불교기초교리를 배우고, 명망 높은 스님들을 찾아뵙고 이것저것 물어대고 글을 쓴 나보다 〈반야심경〉을 못 외웠던 어머니가 왜 훨씬 불교적인 생활을 하셨을까. 당신 앞에 왔던 모든 일들을 무심으로 수용하고, 잘 났네 못 났네 판단하지 않고, 이미 지난날들을 두고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고, 자식들에게도 무엇을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단결에 하라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일구었던 어머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현재'만을 살았던 깨어있는 분이었다. 나에게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다. 살아가면서 '백번 깨어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겠구나'를 느꼈기에 어머니를 추억하는 자리에서 혼이 났다는 생각도 무서웠다는 생각도 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아쉽고 불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매일 〈지장경〉을 읽고 참회의 3백배를 올렸다. 〈지장경〉은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기도를 하는 동안 꿈에 여러 번 어머니가 나타났다. 꿈에서도 어머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법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공부해서 마음을 깨치면 부모형제들이 죽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게 된다고.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내가 자성을 깨치는 일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신통력을 얻어서 부모님이 천상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게 되는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 구하는
목련 존자 일화, 백중 기원돼
중생 향한 자비 부모 돕는 일
자성을 깨치는게 진정한 효도

그런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나와 부모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 내가 평안하면 부모님도 평안한 것이고 내가 괴로우면 부모님도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본래면목인 참 나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효도임을.

백중기도 입재를 한지 몇 주가 지났다. 시댁 어른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 기도도 함께 하고 있다. 매년 백중기도 때가 되면 어머니 생각이 더 난다. 1년에 한 차례라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다행이다. 아마 부처님께서도 이를 알고 제자인 목련이 어머니를 구제하는 것을 통해 수많은 자식들이 백중기도를 통해 효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닐까 싶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의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출가 전 목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한다. 그는 재산의 3분의 1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3분의 1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 공덕으로 부모가 좋은 세상에 가게 된다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기로 한 목련은 아버지를 위해 떼어둔 몫의 재산도 어머니에게 맡기며 잘 써달라고 부탁하고 무역업을 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아들이 떠나자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산을 내놓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가축을 키워 도살해서 파는 도축업을 시작했다. 남을 돕기는 커녕 살생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목련이 사업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는 죽음을 맞았다. 목련은 자신이 가진 재산 모두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국가에 내놓고 출가했다. 출가해서 깊은 수행 끝에 신통 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된 목련 존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어머니가 아귀지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옥 천정에 매달린 채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어머니를 보게 된 것이다.

〈불설우란분경〉에 보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낭비가 심해 재산을 아끼지 않고 썼으며, 귀한 가문만 믿고 교만해서 남을 무시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몰랐다.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길 줄도 몰랐다. 도축업을 하면서 산목숨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질 않았다. 너에게도 스님들을 공양하고 이웃에게 돈을 썼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쾌락만을 쫓아서 살았구나."

뼈만 앙상한 어머니에게 아들은 발우에 음식을 담아 어머니 입에 넣었으나 거꾸로 매달려 있는 탓에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밑으로 쏟아져 내렸다. 신통력이 뛰어났던 목련존자도 지옥에 매달려 있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돌아와 부처님께 어머니의 구제를 부탁한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본 분이었으니 목련존자의 어머니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구제하도록 방법을 일러주었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출가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돕는 일이 가장 큰 공덕을 행하는 일이다. 매년 7월 보름, 출가수행자들의 안거가 끝나는 해제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를 행하라. 그 보시가 그대 어머니와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원해 줄 것이다."

안거가 끝나는 해제에 목련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음식을 차려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일이 오늘날 백중(百衆)의 유래가 되었다. 백중은 백 명 이상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이라는 뜻이다. 백중을 우란분재라고도 부른다. 우란분은 '거꾸로 매달린'의 뜻이고 재는 '베푼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어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 받던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했을까. 당시 스님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밥을 빌어먹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수행자는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출가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중생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살아있는 부모는 물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신 부처님의 은혜도 백중을 맞이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작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